

不況에 허덕이는 歐美石油業界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I. 不況의 油都 휴스턴

歐美的 석유업계가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석유의 공급과잉상태로 原油價 引下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필두로 OPEC가 석유제품으로 수출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에너지관련기업의 업적악화나 도산이 증가돼 왔다. 그래서 메이저는 채산성이 나쁜 정유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기업의 生存을 걸고 買收나 合併으로 줄달음치기 시작하였다. 歐美의 석유업계는 지금 크게 동요하고 있다.

優良企業의 경영악화

「油都」휴스턴의 名門企業, 휴즈·츠르社-세계 최대의 石油掘削用 工具메이커-가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석유불황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며, 收益回復의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생활이 배일에 가려진 實業家 하워드·휴즈가 社主인 이전의 우량기업은 현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건강한 체격에 텍사스모자가 어울리는 듯한 짐렛 슈會長의 안색이 밝지 못하다. 휴즈·츠르社 中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거물경영인은 과거 2년간 종업원의 레이오프(一時 해고)를 중심으로 큰 칼을 휘둘러 왔다. 그렇지만 수익회복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휴즈·츠르社는 제1차석유위기 이후 급성장하였다. 1977년의 연간 매출액은 5억달러 안팎이던

것이 81년에는 17억 6천만달러로 성장했다. 그러나 83년에는 매출액이 11억 6천만달러로 줄어들었고 9천만달러의 결손을 기록하였다. 84년에 적자폭은 1억 3천만달러로 확대되었고, 금년에 들어서도 收益改善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텍사스의 名門企業은 상처를 입었던 것일까. 요즈음 美國内の 석유개발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것이 그 이유다. 「세계적인 원유가 인하에다 달러貨 가치상승에 의한 석유제품의 수입급증과 레이건 정권이 계획중인 석유산업에의 課稅強化가 업계에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이것이 석유개발의 부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렛슈會長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큰 銀行도 흔들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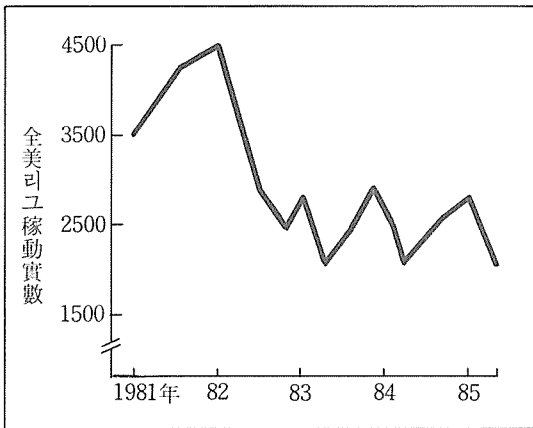
3월 하순, 美南部 경제계에 충격이 가해졌다. 全美國 굴지의 資産內容이라고 세상에 익히 알려져 있던 현지 大銀行들의 지주회사 TCB(텍사스·코머스·뱅크셰어즈)의 84년 제1/4분기(1~3月) 결산이 과거 16년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감소되었던 것이다. 全美國의 은행평가에서 트리플A를 얻고 있었던 것은 모건·개런티·트러스트와 TCB의 2개社 뿐이었다. 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즈社는 최근에 TCB를 더블A로 격하시켰다.

같은 시기에, 南部에서 TCB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大銀行지주회사인 FCB(퍼스트·시티·뱅크포)의 不良貸付가 명백히 드러났다. 불량대부는 3건으로 총액 3천7백7십만달러에 달했다.

그중 1건은 FCB의 임원으로 前재무장관인 존·코너리氏가 보증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현지財界에 큰 화제를 뿌렸다.

2개의 은행지주회사, TCB와 FCB가 크게 실패한 것은 貸付先인 석유관련회사나 부동산회사의 경영이 악화하여 不良債權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本社를 휴스턴에 두고 있다. 같은 텍사스에서 최근 하이테크(고도첨단기술) 도시로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 달라스의 현지 大銀行이 대부분 금년 1/4분기에 增收増益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리그 稼動實數의 推移



高層빌딩에 적막감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는 휴스턴에는 美国의 석유개발부대가 집결해 있다. 이 휴스턴市の 도산전수는 금년에 들어서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기업도산은 81년 1/4분기에 90건이었던 것이 그 사이에 증가해 83년 4/4분기에는 3백건을 돌파하였다. 이것이 84년에는 4/4분기 것의 숫자가 2백 5, 6십건대를 전후하고 있기는 하지만 85년 1월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調査會社인 오피스·네트워크社에 따르면 同市内의 오피스空室率은 33%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의 로스엔젤리스 26%, 시카고의 19%에 비하여도 매우 높다. 석유호황을 기대하고 건립한 오피스빌딩은 원유가 인하에 의한 불황이 밀어닥치면서 적

막감마저 보이고 있다.

美国의 석유개발 동향을 보여주는 리그(석유굴삭장치) 가동實數는 1월 이후 계속 감소해 4월 29일 현재로 1,855기에 그치고 있다. 最盛時인 81년 12월에는 4,500기를 초과하였던 것이 83년 4월에는 1,900기로 줄었다. 그후 全美国의 가동실수는 완만하게 증가를 계속해 작년 말에는 2,800기까지 회복되었었다.

美国의 석유개발관계자는 잠시 한숨을 놓았다. 그러나 원유가 인하가 멈추지 않는데다 달러貨 가치상승과 課稅強化의 계획이 연타를 가한 셈이 되고 있다. 「뭔가 좋은 이야기꺼리는 없습니까」하는 것이 現地비즈니스맨의 인사가 되고 있다.

II. 대응책에 부심하는 美国메이저

엑슨에 關心集中

연일 企業買收의 정보가 亂飛하고 있는 뉴욕 월가에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엑슨이 슬슬 어느 석유회사를 매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同社에 의한 메이저의 買收에는 美国獨禁法의 두꺼운 벽이 있어 GM(제너럴·모터즈)처럼 기업매수에 의한 多角化를 公言하고 있는 뜻은 없다. 그런데도 「무언가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견급의 석유회사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견해가 뿌리깊이 박혀있고 요전에 매듭지어진 필립스·피트롤리엄과 買占王들의 매수공방전에서는 엑슨이 화이트·나이트(적대적 기업매수를 피하기 위한 양도선) 후보의 1個社와 소문을 피웠다.

살로몬·브러더즈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 「국제석유기업의 장래」는 엑슨에 관해 상당히 대담한 예측을 전개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엑슨의 自己資金量(대차대조표상의 現金·預金計定과 일시보유의 유가증권의 합계)은 85~88년 4년간에 7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중 30억달러는 85년에 실시하는 自社株매입에 充당하고 나머지는 企業買收자금으로 돌 것이다.」 그리고 「초대형 기업매수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20억~50억달러의 中型석유회사 매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84년 결산은 매출액 908억 5천 4 백만달러이고, 순이익은 55억 2천 8 백만 달러였다. 美國 大石油會社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엑슨은 自社株매입, 노후정유공장 폐쇄, 不採算事業의 중단 등 減量경영에 의한 체질개선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명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다. 살로몬의 보고서에도 작년엔 잇달아 대형기업 매수를 실시한 세브론(舊 소칼), 모빌, 텍사코에 대해서 매수하기 위한 借入金의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할 예정이나 이와는 반대로 엑슨은 원유가격이 中期的으로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익이 슬럼프에 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엑슨의 強點은 타사와 달리 차입금을 늘리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기업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월街的 관측도 신빙성이 높아져 갈 것이다.

均衡잡힌 企業으로

減量에서 買收로- 그것은 결코 팽창작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메이저의 하나인 걸프·오일을 매수한 세브론의 조지·케라會長도 「린 앤드 트림」(군살을 빼고 균형을 이룬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매수 같은 것이 팽창이 아니라, 原油·가

스의 매장량 확보에 의한 체질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텍사코와 같이 일단 게티·오일을 매수해 일어서면서도 정유공장이나 주유소를 결연히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어틀랜틱·리치필드가 86년말까지 40억달러의 주식매입을 실시할 계획을 결정했는데도 모빌은 요전에 자회사인 大종합소매회사 몽고메리·월드의 분리를 발표하였다. 엑슨이나 아모코(舊 스탠다드·오일·인디아나) 등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은 自社株매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의 진전으로 에너지소비량은 제 1차 석유회귀가 일어난 73년의 3분의 2까지 떨어져 있다. 휘발유가격 인하로 대형차가 잘 팔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연료효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소비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住宅도 난방효율이 높아진 설제로 바뀌지고 있다. 그리고 石油의 大需要處였던 기초소재산업은 모두 경쟁력을 잃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中期的으로는 1 배럴당 24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한 뉴욕 등의 先物市場 발전으로 페르시아灣岸諸國이나 北海油田의 움직임이 美國産 원유가격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거꾸로 美國內의 수급이 국제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가 늘지 않아 국제가격을 인상

美國 大石油會社の 84年 決算과 최근의 主要 움직임

(單位：100만달러)

회 사	매 상 고	순 이 익	주 요 움 직 임
엑 스	90,854	5,528	●주식매입(83년 이래 43억달러) ●오피스 시스템사업 철수(일부 매각)
모 빌	56,047	1,268	●수피리얼·오일 매수(57억달러) ●몽고메리·워드 분리를 계획
텍 사 코	47,334	306	●게티·오일 매수(101억달러) ●각종 非石油사업 철수
아 모 코	26,949	2,183	●주식 매입(84년이래 17억달러) ●사이프레스·미네랄즈社를 분리
세 브 론	26,798	1,534	●걸프·오일 매수(132억달러)
어틀랜틱·리치필드	24,686	567	●주식매입(86년말까지 40억달러를 계획) ●미시시피江 以東에서의 휘발유 정제와 판매에서 철수 ●非鐵金屬사업에서 철수
셀 · 오 일	20,701	1,772	●로열 더치 셀그룹의 完全 3會社로

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되지 못한다.

수익성이 있는 石油事業

美国 大石油會社들의 新戰略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직껏 석유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美国 포춘誌의 美国기업500社 랭킹에 의하면 84년에 10억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 것은 14社이고 그중 6社는 석유회사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하면 그뿐이지만, 다른 8社가 호황을 전부터 구가했던 自動車빅쓰리와 IBM, GE (제너럴·일렉트릭), 듀폰 등의 우량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석유는 기본적으로 벌이가 되는 사업이다.

비철금속, 정보기기, 종합소매업, 보험 등 美国의 大石油會社가 다각화를 추진했던 사업의 대부분은 실패하였다. 다각화에의 반성이 석유사업을 재인식시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서의 석유의 체질강화를 제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一貫體制 포기한 西歐

BP는 정유공장 1개뿐

메이저의 하나인 英國의 BP는 금년말까지 英國 南웨일즈의 스타다쉬의 정유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그 결과 BP의 英國內의 정유공장은 스코틀랜드의 그란지마우스 1개소만을 남기게 된다.

전부터 英國에 5개였던 BP의 정유공장은 이제 불과 하나가 되고 정제능력도 年産 2,600만톤에서 880만톤으로 감소하였다. BP는 전에 國營企業이었고, 아직도 정부가 주식의 31.7%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英國에서의 석유정제사업을 廢棄시키는 것도 주저치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西歐에서 정유공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것은 BP만은 아니다. BP와 같은 입장에 있는 셀도 英國에 있는 3개의 정유공장 가운데 최대의 스타로오 정유공장(中部 잉글랜드·벳사)에서 향후 2년간 전종업원의 3분의 2를 줄이고 생산을 축소할 계획을 최근 명백히 하였다.

美国系 메이저도, 옛소가 스웨덴의 석유정제, 판

매사업을 노르웨이의 국영석유회사 스타트·오일에 최근 매각했으며, 모빌도 西獨의 월켄스헤른 정유공장을 폐쇄하였다. 걸프는 KPC(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에 석유사업을 매각하고 이미 유럽으로부터 철수하고 있지만, 옛소의 스웨덴철수는 세계최강의 메이저의 움직임이니만큼 西歐석유업계를 놀라게 하였다.

제1차 석유위기 이후 10년간에 西歐의 정유공장은 「약 80개소가 폐쇄되었다」(파이낸셜·타임즈紙)고 한다. 이 결과 西歐의 석유정제능력은 年産 10억톤에서 7억5천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삭감을 통한 減量은 석유위기 후의 석유수요 감퇴로 팽창된 과잉설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몸무게를 줄여도 수급갭은 메워지고 있지 않다. 西歐의 정유공장의 가동률은 여전히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요감퇴가 예상외로 큰 폭이어서 약간의 설비합리화로는 수급균형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今後의 西歐의 석유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강하다. 原油處理量을 보더라도 83년의 4억9천6백만톤이 90년에는 4억4천만톤, 95년에는 4억1천6백만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90년에 가동률 80%를 달성하려고 하려면 역시 年産 2억톤의 설비축소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소련·東歐의 위험

이러한 원유처리량의 감소는 需要停滯 이외에도 中東·北아프리카產油國으로 부터의 석유제품의 유입이 압력이 되고 있다. 이미 사우디의 안부정유공장이 작년에 완공되어 제품의 일부가 西歐로도 수출되고 있다. 여기서 주베일 정유공장의 제품이 금후 가세하는 외에 쿠웨이트나 리비아 등도 對西歐 제품수출을 늘려갈 것으로 보여진다. 더우기 西歐에는 소련·東歐로부터 석유제품이 대량으로 유입한다고 하는 특수사정도 있다. 그 양은 「90년까지 中東·아프리카의 2배에 달할 것이다」(파이낸셜·타임즈紙)라는 예상도 있어 오히려 위험은 소련·東歐의 쪽이 될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西歐의 석유회사가 이제까지 일단계의 설비합리화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은 당

西歐의 정제설비 감축현황

(單位: 백만톤/년, %)

	피크時能力	85年初 能 力	감축률	84年末 가동률
英 國	136.6 (78년)	98.8	27.7	75.9
西 獨	159.4 (79년)	104.1	34.7	82.6
프 랑 스	174.5 (77년)	114.6	34.3	66.3
이탈리아	183.2 (77년)	134.0	26.9	59.7
네덜란드	102.4 (77년)	71.4	30.3	67.2
EC 合 計	844.2 (77년)	583.3	30.9	72.0

(資料) EC통계 및 파이낸셜·타임즈

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석유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석유위기전부터 原油開發부문의 업스트림으로, 다운스트림인 정제, 판매는 별이가 되지 않는 부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開發의 이익을 정제, 판매에 쏟아 넣고 세어확대를 노려 왔다. 정제, 판매는 당장 별이가 되지 않더라도 달리 어찌할 수 없는 부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OPEC의 대두로 BP, 셸 등은 많은 개발이권을 상실하여「정제, 판매는 별이가 안되더라도 좋다」라고 하는 등의 여유는 보일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 西歐석유회사는 때늦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로 89년 7월까지의 휘발유無鉛化 대책으로 함께 30억달러의 투자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옛소·유럽과의 조·마크미란副社長이 스웨덴

철수에 즈음하여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하고 내뱉은 말은 현재의 西歐석유업계의 피로운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一貫體制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별이가 되지 않아 폐기한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여전히 판매망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되지 않는다. 결국 合理化의 메스는 정제설비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英國에서 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판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유공장을 불과 1개소로 줄인 BP의 전략이 철저해지고 있다. 전부터 메이저는 원유생산에서 정제, 판매까지의 一貫體制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BP는 그러한 일관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 정제부문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제품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딱 잘라 결론짓고 있는 것 같다.

BP는 각 부문이 정확히 이익을 올리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것은 석유업계를 에워싼 냉혹한 환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한 결과의 長期戰略으로, 西歐의 다른 석유회사들도 많으나 적으나 이 방향의 합리화를 진행시켜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

□ 新刊안내 □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 및 석유산업의 입문서

오늘의 石油産業

大韓石油協會 弘報室